

보도시점 2024. 5. 22.(수) 12:00 배포 2024. 5. 22.(수) 09:00

## 2024년 1/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,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

- 대외채무 규모는 장기외채 중심으로 작년말 대비 △51억불 감소 -
- 외채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1/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추세 지속 중 -

2024년 1/4분기 대외채무는 6,675억불로 작년말(6,725억불) 대비 △51억불 감소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410억불로 작년말 대비 3억불 증가한 반면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△54억불 감소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은행(+7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30억불)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정부(△71억불), 중앙은행(△15억불) 외채는 감소하였다.

한편, 대외채권은 1조 521억불로, 작년말(1조 445억불) 대비 증가(+75억불, +0.7%)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846억불로 작년말(3,720억불) 대비 증가(+126억불, +3.4%)하였다.

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3.1/4분기 26.6% → '24.1/4분기 21.1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3.1/4분기 42.0% → '24.1/4분기 33.6%) 등은 작년 1/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 참고로,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)은 2024년 1/4분기 기준 147.5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\* 단기/총외채(%) : (23.1/4) 26.6 (2/4) 24.6 (3/4) 22.1 (4/4) 20.9 (24.1/4) 21.1

\* 단기외채/보유액(%) : (23.1/4) 42.0 (2/4) 39.4 (3/4) 35.3 (4/4) 33.5 (24.1/4) 33.6

다만,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,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인 만큼,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유창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곤 (gonnnn@korea.kr)

## 참 고

## 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0	2021	2022	2023				2024	전기비 증감
				1/4	2/4	3/4	4/4	1/4	
총 외채(억불)	5,506	6,307	6,733	6,730	6,742	6,598	6,725	6,675	△51
단기외채(억불)	1,601	1,651	1,740	1,788	1,661	1,461	1,407	1,410	+3
장기외채(억불)	3,906	4,656	4,993	4,942	5,081	5,137	5,319	5,265	△54
단기외채/총외채(%)	29.1	26.2	25.8	26.6	24.6	22.1	20.9	21.1	+0.2
단기외채/보유액(%)	36.1	35.7	41.1	42.0	39.4	35.3	33.5	33.6	+0.2
대외채권(억불)	10,344	10,825	10,351	10,391	10,351	10,174	10,445	10,521	+75
순대외채권(억불)	4,838	4,519	3,618	3,661	3,608	3,576	3,720	3,846	+126

※ 통계 출처: 2024년 1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4.5.22.)